

전주동물원 주차시스템 편리해진다

시, 한국도로공사와 주차장 이용자 위한 하이패스 구축 업무협약 체결

많은 전주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전주동물원 주차시스템이 편리해진다. 오는 7월까지 동물원 주차장에 하이패스 시스템이 설치돼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은 정차하지 않고도 주차요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27일 한국도로공사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7월부터 전주동물원 주차장에 하이패스 결제 서비스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로 시스템을 표준화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도입에 필요한 기술 및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주차장 하이패스는 하이패스단말기



전주시는 27일 한국도로공사와 동물원 주차장 하이패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착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 통과 시 동으로 등록된 카드로 결제되는 후불 주차요금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주

차장 통과 소요시간이 평균 약 12초 감소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주차장 하이패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주동물원 주차장 입구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도입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후 향후 대형 주차장에 순차적으로 하이패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삼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주차장 하이패스가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 이후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시민은 인력역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입구를 이용하면 된다. /양은경 기자

'함께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뜻 모아

전북경찰청-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전북운전면허시험장, 업무협약 체결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27일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회장 김두봉), 전북운전면허시험장(단장 이주동)과 함께 고령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함께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도에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상승(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2%(120/194명) 차지, 전년 대비 11% 증가)에 따라 유관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으로 고령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업무협약 설명과 고



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면허시험장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행정에 대한 안내 시간을 가졌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각 기관의 고령자 도움을 통해

교통안전 활동 깊이를 더한다면 어르신 안전의 전라북도에 한층 더 가까워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경찰청에서는 교통정책 수립 시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고령운전자·고령보행자에 대한 교육, 홍보를 지원하는 등 고령자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현장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경신) 업무 등 행정업무와 함께 고령자 안전운전 컨설팅을 통한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 안내 및 홍보물을 배부한다. 대한노인회에서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등 각종 복지사업을 경찰청과 연계해 추진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노인지도자'가 교통안전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튀르키예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공무원이 전주에서 장기 체류하며 전주시 우수정책을 배운다. 전주시는 27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협력과 우호 강화를 위한 K2H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튀르키예 콘야주 공무원 1명을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첫 번째 해외 공무원 장기 연수사업으로, 전주시 1호 연수생은 튀르키예 콘야주

의 시장실 소속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튀르키예 연수생이 전주에 머무는 동안 연수생 희망 분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 연수 △한국어 연수 △전통문화 체험 △기관 견학 △시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연수를 통해 향후 전주시와 튀르키예 콘야주 간 교류 역할을 담당할 '전주시 우호 인제'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아록 기자

덕진경찰서, 전북대 축제기간 성·마약범죄 예방 총력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27일 성범죄 및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5월 10~12일 삼일동안 진행되는 전북대학교 축제기간에 따른 것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축제물을 즐길 수 있도록 전북도 경찰청 여성보호계장, 전주덕진서 여성청소년과장, 전북대학교 학생과장, 총학생회, 연합동아리 회장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성범죄·불법촬영·

마약범죄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위해 홍보 배너 및 카드뉴스 등 게시 장소 협의, 축제 기간 홍보부스 및 교내 방송 홍보 협조, 축제 기간 사전 불법촬영 예방 점검 활동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학교내 사전 불법촬영방지 장비를 통한 집중점검으로 가시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축제 기간 중 범죄 예방 홍보를 위한 캠퍼스 안전 소식지를 리플렛으로 제작해 홍보물과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안전관리 최고 수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2등급 달성... 1등급 받은 기관 없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27일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최고수준인 2등급(양호)을 달성했다. 이번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는 2021년도 평가보다도 2개 등급 상승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우수경영을 보여준 것으로 심사평이 나고있다. 2020년도 6월에 도입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매년 공공기관 대상 종합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는 제도다. 특히 2022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 또 2등급을 받은 기관은 100개 심사대상 공공기관 중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30개 기관(30%)이며, 전년 대비 2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기관뿐이다. 이번 심사에서 공단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전문가 기관 및 전직원 참여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2등급의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그동안 공단은 안전 문화 확산 및 임직원의 업무환경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및 인증, 경영진의 현장점검, 전담조직 구성 등 협력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으며, '혁신안전보건허브'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지원, 영세업체 안전점검 지원,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추진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앞으로도 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지역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이어가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혁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 순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27일 오전과 오후 각각 인후2동 주민센터와 금암2동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우 시장이 이날 방문한 인후2동은 공공기관 밀집 지역이자, 오랜 전통을 이어온 전주여고와 전주생명과학고 등 7개 학교가 위치한 전주 교육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동으로 손꼽힌다. 또한, 금암2동은 팔달로와 가린대로, 백제대로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 단독주택이 비율이 높고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들이 많아 이웃간 정겨움과 따뜻함이 가득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2개 동 주민들에게 민선 8기 시정목표인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와 전주의 대변혁을 앞당기기 위한 전주시의 비전과 철학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인후2동 주민들은 △백동로 일원 재개발 정비사업 △무허가 인덕마을 환경개선 해법 △동중학교 앞 교통체증 해결방안 △구도심 정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계획 등 인후2동의 발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암2동 주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인 △금암고교(폐교) 주변 도시정비사업 △좁은 골목과 인도, 가파른 경사지에 단독주택 밀집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 및 도로 재포장 등 금암2동의 발전과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는 이날 주민들이 건의한 불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가 강한 경제를 토대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오늘 건의하신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더욱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